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제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서명운동 전개



무술년 춘향제를 위해 안동권씨 족친들이 대거 참석했다. 전날부터 불비가 내리고 꽃샘추위가 기승을 부리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많은 족친들이 능동제사에 속속들이 도착했다.

족친들은 도착과 함께 능동제사에 설치되어 있는 “충장공 권율도원수 행주대첩승전 기념 국가행사로 격상하는 100만 서

명운동”이라는 현수막을 보자마자 곧바로 서명운동에 동참했다.

이 작은 서명의 물결이 큰 파도가 되어 전국으로 휘몰아치기를 간절히 기원하며 마음을 모았다.

특히 권재덕 족친은 전주에서는 현재 10여명이 주도가 되어 대대적인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다.

전국 청장년회장단협의회 회의 개최

4월 5일 저녁 8시 안동 능동제사에서 전국 청장년회장단협의회가 14개 지역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 회의에서는 5월 6일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30회 안동권씨 전국체육대회가 주된 안건이었다. 권승호 서울청장년회장과 권순운 서울청장년 사무국장은 현재까지의 준비상황에 대해 보고하며 특히 성금이 모아지지 않아 큰 곤란을 겪고 있다고 대회 준비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이에 전국청장년회장단은 안동권문의 단합과 화합을 도모하고 수도 서울에서 개최하는 것인 만큼 적극 지원하기로 약속했다. 권영식 전 협의회 회장은 즉석에서 성금 100만원을 기탁하면서 서울대회가 성황리에 개최될 수 있도록 전국 청장년의 힘을 모으자고 역설했다. 광주회장은 체육대회를 한번 개최해 보니 돈과 사람이 많이 모이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다면서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경주회장은 젊은 청장년이 가장 많은 경주가 지금까지 우승을 가장 많이



했는데 날씨를 어린이날 등이 끼여 있는 5월로 변경해서 우승을 장담 못할 지경이라고 말했다. 부산회장은 다음 개최지가 부산인데 체육대회만 생각하면 벌써부터 잠이 안온다고 말하며 내년 4월 28일이 대회 개최 예정일이라고 날씨까지 미리 선포하며 민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회의에는 능곡회장, 대구회장, 문경회장, 봉화회장, 안동회장, 안강회장, 영주회장, 예천회장, 청주회장, 합천회장 등이 참석하였다.

봉승사화의 고장 봉화군 문화여행에 달실마을 충재(冲齋) 종손증부가 선정

봉승사화(奉承士化, 선비를 받들고 숭상함)의 고장 봉화군(奉化郡)은 최근 지역명사와 함께한 문화여행에 달실마을 충재(冲齋) 권벌(權撥) 후손인 권용철(宗孙, 45), 권재정(종부, 43) 씨 부부가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역명사여행 사업은 지난 2015년 시작 13건의 프로그램 운영 중 올해 6건이 추가되었는데 충재의 젊은 종손부부 이야기가 최초, 부부가 함께 선정

되는 영예를 안았다. 충재 종손, 젊은 부부의 이야기는 달실마을, 청암정, 충재 권벌 선생 19대 종손인 안동 권씨와 종부 예천 권씨 부부의 삶을 연계해 문화관광 콘텐츠로 활용하게 된다. 한편, 지역명사여행은 지역 여행상품의 고급화를 목적으로 한 사업으로, 최근 각광받는 인적자원(휴먼웨어)을 관광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한 새로운 관광콘텐츠다.



권오준 포스코 회장(왼쪽부터), 권오갑 현대중공업 부회장,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권오규 前 경제부총리,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

권오회를 아십니까?

언론매체에서 자주 접하는 안동권씨 기업인들이 있다. 한국경제의 사령탑들이다. 권오현 삼성전자 회장, 권오준 포스코 회장, 권오갑 현대중공업지주 부회장이다. 끝지의 한국 대기업의 최고경영자(CEO)라는 점 외에 안동권씨 35세 라는 ‘뿌리 깊은’ 공통점이 있다. 세 사람은 모두 안동 권씨 35대손이다. 하지만 안동권문이라는 뿌리는 같지만 이들이 몸담고 있는 기업의 업종과 성격은 제각각이다.

이들은 외부행사장에서 만나 명함을 주고받다 인사를 나누는 횟수가 늘어나면서 “이름이 저랑 비슷하네요”라는 인사로 시작하다 누군가가 “이름이 비슷한 것도 인연인데 식사나 한번 합시다”라고 제안했다. 세 사람은 첫 모임에서 “정기적으로 만나자”고 의기투합했다. 나이도 비슷하다. 권오준 회장이 1950년생으로 만

형이다. 권오갑 부회장은 1951년생, 권오현 회장은 1952년생이다. 그러다 안동 권씨 출신 기업인인 권영수 LG유플러스 부회장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을 지낸 안동 권씨 35세손인 권오규 전 장관(현 KAIST 금융전문대학원 초빙교수)이 고정 멤버로 합류했다. 이렇게 하여 안동권씨의 권權과 돌림자의 오五자를 합해서 ‘권오회’ 權五會가 탄생했다.

처음엔 친목모임 성격이 짙었으나 모임을 거듭할수록 자연스럽게 국내 산업계 현안을 토론하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경제현안에 대해 의견을 주고받는 자리로 발전했다.

권오회 멤버들은 1박2일 일정으로 삼성전자와 현대중공업, 포스코 등의 공장을 함께 둘러보기도 한다. 다른 기업의 생산현장을 직접 보고 한국의 기업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 밤늦게까지 심도 깊게 토론하는 일정이다.

원연친목회 봄 야유회 개최



지심도 하트 손 조형물 앞에서 원연친목회 일동

안동권씨 울산 원연친목회는 회원부부 동반으로 26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4월 15일 봄 야유회를 거제도 지심도와 해금강 둘레 길을 다녀왔다.

권세범 총무의 사회로 출정식이 진행되었으며 권오봉 회장은 인사말에서 연례 행사인 봄 야유회를 맞이하여 오늘날만큼은 모든 일을 제쳐놓고 그동안의 쌓였던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가장 즐거운 하루가 되기를 바란다”고 하였다.

이어서 권운범 총무의 관광지에 대한 자

세한 설명과 일정 소개가 있었으며 역대 회장들의 덕담으로 목적지에 도달했다.

탁 트인 바다와 거목의 동백나무 숲으로 이루어진 지심도의 둘레 길을 함께 걸으면서 지심도의 말 그대로 회원 상호간에 마음이 같음을 공유하는 행복한 길을 같이하고 다음으로 해금강 둘레 길을 끝으로 아무런 사고 없이 하루 일정을 마무리하였다.

울산종친회 총무부장 권운목

권태성 행정고시 합격

권태성(검교공과 33세)씨가 2015년 제59회 행정고시(일반행정)에 합격했다. 현재 산업통상자원부에서 행정사무관으로 근무 중이다. 권태성사무관은 대외의국어고등학교 중국어과를 졸업하고 고려대 행정학과 3학년 재학 중에 합격한 수재로 알려졌다.

어릴 적부터 종류를 가리지 않고 수천권의 책을 독파하며 남다른 면모를 보였다. 나중에 읽을 책이 없어서 아버지 권중수((주)비커러스 상무)씨가 헌책



방에서 사다 준 브리테니커 백과사전까지 다 읽을 정도로 독서광이었다. 그 독서력은 논술에 뛰어난 재능과 강점을 지니게 되

는 밑바탕이 되었다.

권태성사무관은 지금도 대국민 보편가슴이 뭉클할 정도로 국가관이 투철한 대한민국 공무원이다.

안동 능곡회(陵谷會)활동

안동 능곡회(제32대 권오준 회장) 회원들은 시조 추향제와 춘향제가 개최될 때마다 회원 30여명이 참여하여 제물봉행 등 굿은일을 도맡아서 한다. 능곡회는 1988년 8월 8일 창립해서 30여년 동안 그 명맥이 이어져 오고 있으며 현재 활동 중인 회원은 92명이고 능우회(65세 이상)가

지 포함하면 모두 115명이다. 2018년 춘향제에도 어김없이 회원들이 참여하여 족친들이 별다른 걱정 없이 춘향제를 봉행할 수 있도록 도우미 역할을 톡톡히 했다.

또한 능곡회는 지난 2월 24일 40여명의 회원이 부부동반으로 약 2시간에 걸쳐 착사대회를 가진 바 있다.

안동권씨 경주종친회 정기총회

경주종친회는 4월 23일 오전 11시 경주 종친회관에서 100여 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 정기총회를 열고 경주향교 수석장와의 경주종친회 감사를 지낸 권창래(權昌軌, 佐尹公派 梅軒門中 39) 족친을 새 회장으로 선출했다.

수석부회장엔 경주시의회 의장을 지낸 권영길(추발공파 34)회원을, 감사는 권용호(佐尹公派 38대), 권용식(佐尹公派 38

대)회원을 선임하고 사무국장(權五玆)과 총무(權協滿)를 유임시키는 한편 재무는 권동찬(權東燦, 佐尹公派 37)회원을 새로 선임했다.

신임 권창래 회장은 “경주향에서 지킨 4대 명가의 위치를 굳건하게 지키기 위해 족친간의 소통과 숭모 돈족하는데 힘을 모으겠으며 2019년 5월에 경주 화수회를 열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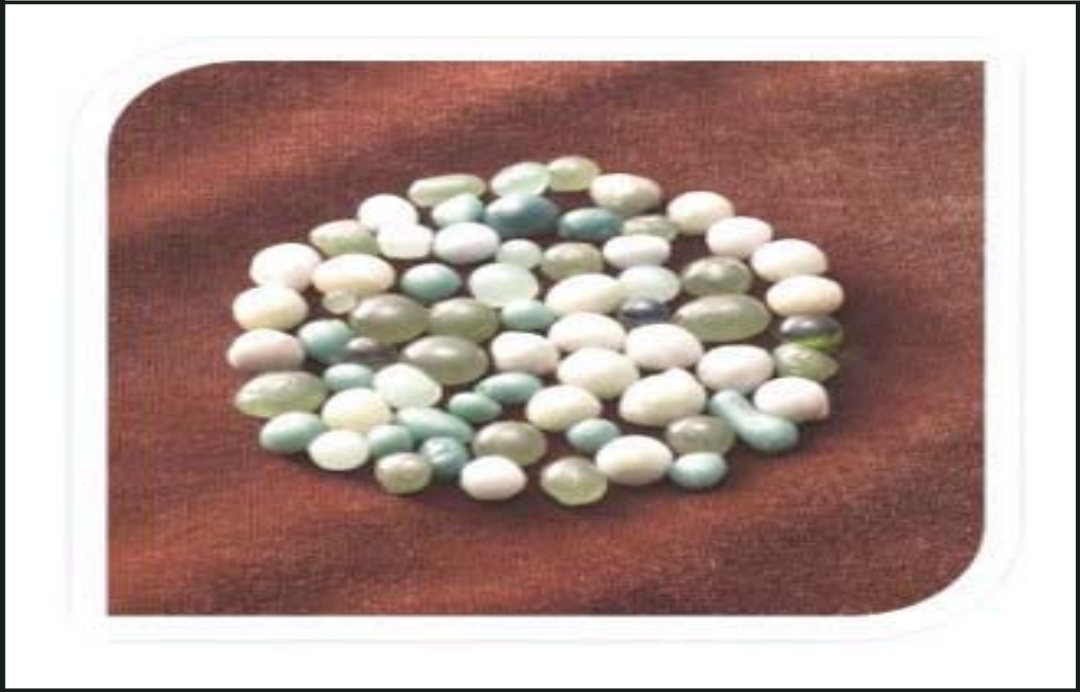
금천종친회 제 30회 전국체육대회 성금 200만원 전달

금천종친회(권태복 회장)는 4월 1일 (일) 정기총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금천종친회 전 회원들의 마음을 모아 제30회 전국체육대회 성금으로 200만원을 기증하기로 결의했다. 이 자리에서 권태복 회장은 권순용 제30회 전국체육대회 사무국장에게 그 어느 대회보다도 성공적인 대회가 되기를 기원한다면서 성금을 전달했다.



장례문화의 새로운 지평을 열었습니다

장례문화는 매장에서 화장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본사는 묘역관리 및 화장 후 유골 보존에 세계 발명 특허 장치에 의한 사리화(봉안옥)로 생성시켜 영구 정결 보존하도록 납골당 문화를 획기적으로 바꾸는데 성공 현재 전국 4,000여기를 봉안하고 있습니다.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 견본 사진

표준 봉안함	기독교 성서형 봉안함	불교형 봉안함	

◆ 봉안옥(奉安玉 자화사리)의 안내

- ♣고인을 깨끗이 봉안할 수 있어 사자의 품위와 평안을 유지하고 유족에게 안심을 통한 또 다른 기쁨을 드립니다.
- ♣유골이 구슬(사리) 모양으로 생성되어 거부감과 변질이 없습니다.
- ♣영옥(靈玉)은 종교의 구분이 없습니다.
- ♣깨끗하고 편리하게 관리할 수 있어 돌보지 않는 산소의 문제점을 해결하고 가족에게 효(孝)사상을 고취시킵니다.



주식회사 본향

주소 : 경기도 이천시 충신로 345번지 165, 홈페이지 : www.holytec.com / 상담문의 : 010-5224-0079 고문 권영순